

일상생활의 비인간화

“정리해고의 불길한 삶의 터전”

김진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서울대학교수



항상 주머니에 돈을 넉넉히 넣어 다니던 사람이 어찌다가 버스를 타는데 요즘엔 돈이 없을 때 그는 턱없이 당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요즘 낸 돈을 누구한테 얻는담! 마침 주머니안에 은행현금저급카드가 있어서 인근의 현금출납기를 찾아가 365일 서비스한다고 광고한 문구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전자카드를 넣었는데 이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한참 당혹해 하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현금서비스하는 시간을 넘

겼던 것을 알게 된다. 정류장에 있는 사람에게 요즘을 위한 돈을 구걸해 볼까 생각하니 갑자기 자기 처지가 처량하기 그지 없이 느껴진다. 현금저급카드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이야 오죽할 것인가! 갑자기 이 세상이 돈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떼어 놓기 힘들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일터에서 모든 시간과 사람의 모든 동작이 돈으로 계산된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자신의 이윤증식을 위해 써야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터 밖에서도 어디를 가든 무엇을 가지고 놀든 일거수 일동작이 돈으로 계산되어 그 움직임의 비용을 요구하는 만큼 된다면 인간의 일상생활은 주차장에 넣은 자동차처럼 돈으로 규정된 세상으로 될 것이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폐차의 비용을 요구받고 폐기되는 것처럼 또한 인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일이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게으름'을 피워도 그것을 하는 시간의 비용을 지불하기를 요구되는 것이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변되는 자본주의사회이다.



민중은 노동자이고 민중의 삶이 민본(民本)을 구성하는 것이다.

민중이 불안하고 건강치 않으면 국가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민주노동운동전영이 향상한 국가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투명한 인식판단력으로
세상을 지켜가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필요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98년초에도 노동자측은 고용불안에 더하여 정리해고의 위협한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불안감은 1998년 1월 7일 속리산관광호텔에서 모인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분위기에도 그대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중앙위원들의 발언에는 모두 한번이상 해고당해본 경험이 있고 그 해고의 쓰라림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동지의 큰 몫치로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결국 보통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가족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어울리는 공동체생활로 구성되는 것이고 거기에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원리가 귀중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의 사회 질서로 자리잡는 것을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70년대 노동운동현장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게 되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속리산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지나온 10여년 노동운동에서 숱한 싸움을 통해서 인간의 일상적 삶이 깨어지게 되는 해고를 국가가 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그 후안무치한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처절한 마음을 가눌길 없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얼마인가, 그리고 취업자는 얼마인가? 국가기구가 만들어 내는 통계자료에는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그리고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로 표시되는 그러한 인구집단에는 '노동자'라는 용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으로서나 운동에서는 '노동자' 또는 '노동자계급'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을 쓰는 바, 노동자는 이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자체이다. 1,300만 노동자는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거의 대다수 취업자와 그 가족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해고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이것은 국민 전체를 해고 상태로 몰아 넣는 형국과 같다. 민주노총의 중앙위원은 민주노총이 노동자 민중 국민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최후의 도덕적 양심의 심장부임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솔하게 해고와 수배 구속을 당한 그 체험의 순결한 마음을 통해서 정리해고의 제도화를 막고자 결의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당시 회의에서 어떠한 전술 전략의 토론이 나왔다고 해도 최후로 바탕하는 도덕적 인식이었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은 이 핵심을 살리고 지켜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중앙위원회가 밤을 새면서 진행되는 동안 청주지대에 8년만에 내리는 대설이 왔다. 다음날에 개최되는 전국단위노동조합대표자회의에 참석하려고는 노동자들이 크게 내린 눈 때문에 길이 막혀도 대거 참석했던 것은 이 점을 확인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란 무엇인가? 근래에 와서 근대 국민국가의 약화 내지 국민국가 형태의 변화 또는 해체에 대하여 '근대성-탈근대성' 논의 맥락에서 지적되고 있고 국민국가의 주권을 비롯거나 약화시키는 초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군사기구를 그 심상치 않은 존재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가 형태가 발전하던 때에 주장되고 한국에서는 1980년대 사회구성에 관한 변혁론적 전망에서 국가를 축적의 주요한 당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경우에도, 국가가 기초해야 하는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는 국가는 본질적으로 부르조아독재체제이지만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구성원인 민중과 노동자계급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전체이익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자본의 단기적 이해관계와는 충돌하는 경우에도 노동자계급을 체제내화하고자 노동 3권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보편성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보통선거제를 도입하여 대의제민주주의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 경우 그 국민의 보편적 이익이란 결국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이념이었으며 국가의 기능을 그것을 실현하는데로 제도화하

고자 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정권은 '민족중흥'이란 보편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정권의 정당성을 무리하게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중에는 유신을 선포하였다. 당시 정치적 상황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권에 '무조건적인 충성'만 강요하는 사태였다. 국민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 하는 사이에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보자는 의견을 이야기로 나눌 수 없었다. 대학생이 서점에서 손에 잡히는대로 책을 사서 읽다가도 그것이 공권력 당국의 수사관에 의해 이적물 소지이라고 옥박질리면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할 수가 없었다. 소설을 읽는다든지 신문사설을 읽어도, 국내의 유명한 학자가 쓴 글을 읽어도 거기서 발상되는 어떤 생각이 마침 활짝 펼쳐질려는 순간에 이 발상이 이적표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발상의 전개는 갑자기 중단될 것이다. 창의력이란 이러한 자유로운 발생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바로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원칙적으로 확보되는 것인데, 스스로 바로 중단되는 것이다. 별칭한 젊은 사람이 시내를 걸어가다가도 도열한 경찰에 의하여 불심검문을 당하여 주민등록증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들고 가던 가방이나 핸드백이 열리고 젊은 순경의 눈길과 손길에 의하여 그 가방안이 검색되어 마치 정절이 마구 짓밟히는 듯, 국민들이 거리를 걸어도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소외되는 것이상으로 유린당하는 사태가 계속되었다.

이 경우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을 유린하는 것이 공권력행사의 권위였던가! 국가가 제정한 교과서에서만 대학입시문제가 출제되어야 하고 거기서 또한 하나의 정답만 요구하는 체제를 위해서도 과외공부에 온나라 집집마다 돈을 쏟아부어야 했고 수험생은 내신제와 겹쳐서 오는 입시의 중압을 참고 밤늦게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음악을 듣고자 해도 그 효과가 공부하는데 외부의 소음을 귀에 꽂은 폰의 음악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음악 자체를 음미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오랫동안의 입시제도에 의하여 아꼈려 정답과 비정답사이의 선택논리에 젖어서 흑백논리에 빠지지 않을수 없고 남을 대하여도 자기편인가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가득차게 만들었다.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정답을 나눌수도, 일상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할 수 없었다. 토론이나 일상생활의 언동이 한편으로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어떻

게 판단되는가에 신경쓰고 한편으로는 거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반응하듯이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는데도 복속하는 자세를 기르고 더 나아가 이웃의 불행이나 고통을 무심하게 외면하는 습성을 기르게 된다. 오직 일상생활에는 생각을 깊게 하지 말고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일일연속극에 무심히 재미를 붙이든지 현란한 광고에 이끌려 소비만 열심히 하면 만사가 지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일상생활의 창의성은 어디로 스며들어 갔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된다. 창의력이 솟아나야 문화적 다양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그저 남의 나라에서 나오는 유행을 모방하는 몸짓만 요란할 수밖에 없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국가권력이 둘러쌓아 놓는 지배의 종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말 한마디, 한발자국 거동이 모두 반공이데올로기와 반민주주의의 독재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채단되었던 세월이 너무 길어서 국민은 정치체제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오로지 지배권력을 위해 투표만 하게 될 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정치적으로 황폐될 수만은 없었다. 1980년대에도 이어진 악독한 군사독재시대에 오직 민중의 운동력이 발생하고 결집해서 1987년의 위대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하여 그 군사독재체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대통령선거에서 비군부출신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적 선거에 의하여 치를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권력의 획득과정은 국민으로부터 절차상의 정당성을 얻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자체만으로 산적한 비민주적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문화적 창의력의 불모성은 '세계화'를 위한 토대와 기초를 쌓을 수 없게 하여 경제체제가 단지 '체벌'의 가족주의적 이권에만 기여하는 취약성과 부도덕성을 키웠고, 따라서 민주화와 자유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면 했을 문민정권의 5년을 허송시키고 말았다.

이제 다시 1998년 2월에는 재차 문민정부 형태가 출범하는데 그 새 정권은 탄생과정에서 국제금융자본의 횡포에 휘말린 위기를 맞이하여 법제적으로 '정리해고'를 설정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되던 국민과 민중은 다소 정권획득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긴 하였으나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은행의 지점장들도 수백명씩 명예퇴직을 하게되고 각광을 받던 컴퓨터도사들도 정리해고

되고 있고 고급기술자도 해고되고 증권사 사람들도 대량해고되고 있고 건설업종의 노동자들도 일터를 잃고 있다. 도시의 서비스직종에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수 있는 꿈조차 꾸기 힘든 젊은이들이 값싼 노동의 시간제근무에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닌다. 고용불안은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욱 더 정리해고의 국가적 조치가 더욱 국민의 생활을, 일상생활 전반을 황폐화시키는 효과를 볼보듯 보게 되었다.

이번 정리해고의 법제화에 있어서 민주노동진영이 올바른 인식과 판단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1,300백만 노동자의 희망이라고 일컫는 민주노총도 노사정합의안을 거부하고 파업투쟁을 하려는 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파국의 모든 책임이 마치 민주노총에 있는듯이 제도언론을 통해서 여론몰이 공세에 자칫 실수를 함으로써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종적 도덕성에 훼손을 받게 되었다.

물론 사회적 합의제의 최초의 경험이 완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명백히 확인하고 객관적 사태를 인식하는 집단적 능력과 도덕적 순결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생산과 소비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불안과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의 다양성과 창조성이 길러지는 확고한 전망을 노동자와 민중의 전망에서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청됨을 알아 차려 보자. 민주노동운동진영의 민주성과 진보성이 더욱 자라야 하겠고 그 바탕위에서 국가가 더욱 민주적이고 진보적일 수 있도록 한시도 시름에 빠질 수 없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대처해야 하리라고 절감하는 바이다. 일상생활은 민중의 생활로 꼭 차있는 것이다. '생활상'의 요구가 민중의 진정한 삶의 요구이다.

다시 한번 민중은 노동자이고 (사실 이제 '중산층'의 허상적인 존재가 이번 해고태풍과 극소전자기술의 확대에 의한 영구직종의 쇠퇴현상에 의하여 환상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중의 삶이 민본(民本)을 구성하는 것이다. 민본이 불안하고 건강치 않으면 국가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된다. 따라서 민주노동운동진영이 항상한 국가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투명한 인식판단력으로 세상을 지켜가는 파수꾼이 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